

진안-무주-금산,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 '성황'

단합 · 소통 · 상생발전 기틀 다져

진안군 용담면(면장 최상오)과 무주군 부남면, 금산군 남일면이 참여하는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가 25일 진안 용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단합과 소통으로 상생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공동번영을 위한 행사로 각 기관·사회단체장, 이장과 지역유지, 각 면의 리더 등 120여 명이 모였다.

이번 행사는 해용솨를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열리고 민속경기와 노래자랑이 포함된 화합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되어 상호 우의와 신뢰를 다졌다.

올해로 24회째인 용담면과 동쪽으로 인접한 무주군 부남면과 북쪽으로 맞닿은 금산군 남일면 등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지난 92년도부터 해마다 개최지를 번갈아가며 열고 있다.

최상오 면장은 "실질적인 지역생활 공동체로 이끄는 3개면이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25일 진안군 용담면과 무주군 부남면, 금산군 남일면이 참여하는 24회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가 진안 용담체육관에서 열렸다.

정읍시보건소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후원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보건소 허성욱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아들 결혼식 축의금 중 일부를 정신재활시설 마음사랑의 집(시설장 손동혁) 운영에 써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기탁하는 자리에서 허 과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촉진 및 재활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샘골복지재단 마음사랑의 집'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해 일상생활 훈련과 약물관리, 여가활동 훈련, 직업, 주거 훈련 등의 다양한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손 시설장은 "소의되기 쉬운 정신 장애인에게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번 후원금은 마음사랑의집 정신재활사업 운영 전반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새마을지도자 운암면협의회, 사랑의 건강밥상 반찬 60개 전달

임실군 운암면 봉사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운암면협의회(회장 박찬영)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임명자)는 독거노인세대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찬 60개를 전달했다.

운암면은 1966년도에 섬진강댐축조로 농지가 수몰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로 어렵게 사는 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새마을 가족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사랑의 건강밥상 반찬나눔 배달서비스'를 진행하게 됐다

임명자 새마을 부녀회장은 "주변 이웃들이 꺼니 걱정없이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오광덕 운암면장은 "연중 가장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혼돈하다"며 "행정에서도 행복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 운암면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봄에도 옥정호순환도로와 군도변에 코스모스 식재 및 옥정호 수변 부유물 정화활동을 전개로 지역사회발전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다산북스, 진안군에 7600여권 도서 기증

도서 출판사 ㈜다산북스가 지난 24일 진안군에 1억원 상당의 7,634권의 도서를 전달했다.

이번 기증은 지난 8월말 진안군과 ㈜다산북스간 도서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군은 기증받은 도서를 25일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등 11개소에 배부할 계획이다.

진안읍 노계3동 작은도서관 유지화 사서는 "기증된 도서는 도서관을 찾는 지역 주민들에 제공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기증을 통해 나눔과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도서 기증에 매우 감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지원 교류를 통해 출판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의 모범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4년 설립된 다산북스는 2011년 경기도, 2012년 전라북도,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 고창군, 2017년 익산시에 도서를 기증하여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해피푸드 조덕연 대표, 임실군에 '신바람난 썬빵' 기탁

전국에 100여개의 체인점을 두고 있는 '신바람난 썬빵'으로 잘 알려진 (주)해피푸드(대표 조덕연)는 25일 임실군을 방문 100만원 상당의 썬빵을 심민 임실군수에게 전달했다.

조덕연 대표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임실군의 어르신들에게 차가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썬빵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썬빵으로 유명한 기업인 해피푸드에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이처럼 많은 양의 빵을 기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기증된 썬빵은 군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주)해피푸드는 지난 2005년 신바람난 썬빵 소문두 전주지사를 설립한 이래 논산과 진안에도 공장을 설립했으며, 전국에 100여개의 체인점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월요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96)912 전주신문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 · 편집인 조봉성	회장 김옥길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2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8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영지지사 010-9845-98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22-389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농협남원시지부, 상생협의회 및 환경정화 실시

남원시 농협발전 상생협의회(의장 심민섭)는 최근 양림단지에서 농협중앙회 및 관내 농·축협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농협발전 상생협의회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남원시 농협발전 상생협의회는 남원관내 농·축협 및 품목농협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현재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업·농촌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심민섭 의장은 "이번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밤농협 임직원간 소통 및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지역내 깨끗한 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농협으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